

일교차 큰 환절기, 돼지 건강은 온도·환기 관리부터

- 포유자돈 보온 공간 30~35도, 비육돈 16~21도…성장 단계별 적정 온도 달라
- 보온에 치우쳐 돈사 밀폐하지 말고, 최소 환기량 유지
- 온습도·돼지 행동 함께 살피고, 계절성 질병 차단방역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낮과 밤 기온 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돼지 건강과 생산성을 지킬 수 있는 돈사 온도·습도·환기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돼지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반복 노출되면 체온 유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사료 섭취량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질병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돈사 내부 온도 변화 폭을 줄이면서 적정 환기량을 유지해야 한다.

돼지는 어릴수록 따뜻한 환경이 필요하고, 성장할수록 알맞은 사육 온도가 낮아진다. 체온 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젖먹이 새끼 돼지(포유자돈)에게는 30~35도(℃)의 별도 보온 공간을 마련한다. 젖을 떼 새끼 돼지(이유자돈)는 22~29도, 육성 초기 돼지는 20~27도, 육성 후기 돼지는 18~22도, 비육돈은 16~21도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젖을 먹이는 어미돼지와 새끼 돼지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알맞은 온도가 서로 다르다. 돈사 전체를 덥히기보다 보온 등이나 보온판을 활용해 자돈이 따뜻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 보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날씨가 추워졌다고 돈사를 과도하게 밀폐하면 습도가 높아지고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과 먼지가 쌓여 돼지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돈사 내부 상대습도는 돼지의 성장단계에 맞춰 대체로 50~70% 범위로 관리한다. 외부 기온이 낮더라도 최소 환기량을 유지해 습하지 않게 유지한다. 이때 찬 공기가 돼지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공기 유입구 방향과 열림 정도를 조절한다.

돼지 행동을 살폈을 때 한곳에 겹쳐 눕거나 몸을 웅크리면 추위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서로 떨어져 눕거나 보온 공간을 피해 넓게 퍼져 있으면 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 돼지 분포와 쉬는 자세, 사료 섭취량, 기침·설사 등 이상 증상을 함께 살펴 온도와 환기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2013~2022년 국내 신고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돼지유행성설사 바이러스 양성 사례는 연중 확인됐지만 네 차례의 큰 유행은 주로 겨울부터 이듬해 봄에 나타났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기 전, 분만사와 자돈사 보온 상태를 미리 살피고,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 전용 작업복·장화 착용, 소독 등 기본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김시동 과장은 “환절기는 겨울철 돼지 유행성설사에 대비해 농장 방역 상태를 점검할 ‘황금시간’이다.”라며 “하루 최고·최저 온도와 돼지 행동을 함께 살펴 어린 자돈의 보온 공간을 확보하고 최소 환기량을 유지하면서 차단방역에도 신경 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환절기 돼지 사양관리

붙임2. 환절기 돈사관리 체크리스트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책임자	과 장	김시동 (041-580-3440)
		담당자	연구사	민예진 (041-580-3444)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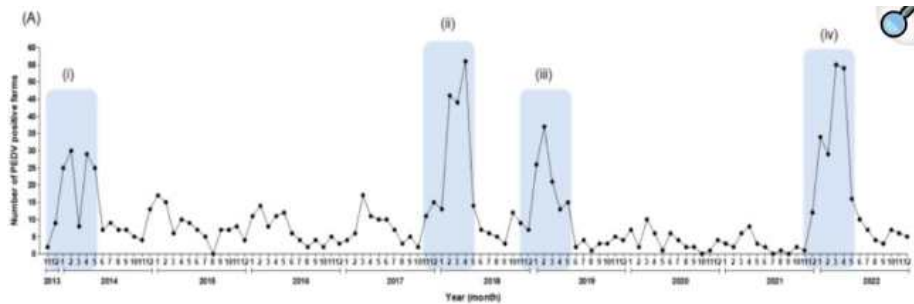
환절기 돼지 사양관리

□ 돼지 성장단계별 적정 사육 온도 및 습도

성장단계	온도, ℃	습도, %
임신모돈, 웅돈	16~21	50~60
포유모돈	18~21	50~60
포유자돈	30~35	60~70
이유자돈	22~29	60~70
육성초기	20~27	60~70
육성후기	18~22	50~60
비육돈	16~21	40~60

출처: 산자수(MSY) 27두 달성을 위한 사양관리 지침서(2018, 국립축산과학원)

□ 돼지 유행성설사(PED) 주요 발생 시기



출처: Park G.N. et al. (2023), Spike Gene Analysis and Prevalence of Porcine Epidemic Diarrhea Virus from Pigs in South Korea: 2013 - 2022, Viruses, 15(11), 2165.

- 2013년 말부터 2022년까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보고된 국내 돼지 유행성설사 1,131건을 월별로 나타낸 그래프
- 네 차례의 큰 유행: 2013~2014년, 2017~2018년, 2018~2019년, 2021~2022년
- 큰 유행은 주로 겨울부터 이듬해 봄에 나타남
- 다만 매년 11월부터 5월까지 항상 발생이 많았다는 뜻은 아님

붙임2

환절기 돈사관리 체크리스트

<환절기 돈사관리 체크리스트>

- 포유자돈은 30~35℃, 이유자돈은 22~29℃ 수준으로 성장단계에 맞는 온도 유지
- 육성 초기 20~27℃, 육성 후기 18~22℃, 비육돈·모돈 16~21℃ 수준으로 관리
- 성장단계에 따른 적정 습도를 확인하고, 결로나 바닥 습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돈사 내 하루 최고·최저온도를 기록해 급격한 온도 변화 여부 확인
- 보온을 위해 돈사를 지나치게 밀폐하지 않고, 암모니아 냄새·결로·습기 등이 심해지면 환기 상태 점검
- 찬 공기가 돼지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입기구 방향과 방풍시설 점검
- 자돈이 보온등 아래 서로 포개지거나 보온공간 밖으로 퍼져 눕는지 등 휴식 행동 관찰
- 사료 섭취량 감소, 기침, 설사 등 이상 증상 조기 확인
- PED 등 계절성 질병에 대비해 전용 작업복·장화 착용, 출입 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